



안탈리아 선언

2015 년 3 월 3 일

터키, 안탈리아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경감 전문가 포럼: 깨달음에 관한 깨달음
이 포럼은 USAID, CCB/CU, WMO 그리고 미국 NOAA 와 GFDRR**의 지원을
받은 TSMS 의 지원으로 2015 년 3 월 10 일부터 13 일 까지 터키의
안탈리아에서 열렸다.

“나무를 심는 가장 좋은 때는 20 년 전 이었다.
그 다음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프리카 속담

지금 이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기상 재해경감에 사회가 나설 때이다.

**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nsortium for Capacity Building,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very, Turkish State Meteorological Service.

주의: 안탈리아 선언은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 견해이며, 어떤 지원 조직의 견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사이트로 연락 바랍니다 **CCB-boulder.org**

이 메일: **michael.glantz@colorado.edu**



안탈리아 선언

43 개국의 국가기관, 인도주의 단체, 시민 단체, 학술 및 응용 과학 연구 기관, 실무자 및 청소년 및 젊은 전문가 90 여명이 중지를 모아 마련하였다.

포럼 참가자의 관심사

위험과 재해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배움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검토하면 이미 인지 되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았거나, 동일 장소에서 재발하는 유사한 재해에서 다시 깨닫게 될 여러 교훈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주요 교훈은 “파악된” 깨달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적으로 “학습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깨달음이 파악되고도 실제 학습되지는 않는 경우 가능한 파생 결과

다음의 실행 요구는 포럼 참석자의 중지를 모아 도출된 것이다. 중대한 환경과 사회의 격변기인 오늘날 아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다면 이는 “될대로 되라”라는 사고방식과 정신적인 본보기가 만연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기후, 물, 그리고 기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과 기록적인 극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해경감예산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재해경감 대응비용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장·단기적인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방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제한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위험 감소에 효과가 있기에 다음 사항에 대해 투자확대를 요구한다.

6가지 행동 요구사항

1. “교훈 학습” 과정: “파악된 교훈”의 포털

선행된 재해경감 관련 중재를 통해 파악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재해경감 관련 교훈의 수집, 확인, 분류, 보관, 전송 및 공유에 특별한 초점을 맞춘 사용하기 쉽고 혁신적인 재해경감 지식포털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훈은 미래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중재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역량배양(및 시범사업)을 위한 재해경감 학습에 대한 인센티브

정부, 개발은행, 유엔, 기증자 및 이행 파트너는 개인이나 단체의 과거 역량배양 성과를 존속시키기 위한 (경제, 재정 및 규정) 인센티브를 만들어 재해경감 사업의 성과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재해경감 관련 시범사업을 장기사업으로 전환할 때는 처음부터 과거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 사업은 서로 간의 진정한 협력정신과 모든 참여자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명확하게 수용하여 선정되고, 기획되어야 하며, 그리고 실행되기를 요구한다.

3. 재해경감과 기후변화적응의 융합 및 혼합: “오렌지” 펀드

재해경감과 기후변화적응 공동체는 장기적인 지속성을 위해 상호지원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겹치는 재해경감 관련 활동을 혼합하여야 한다. 오렌지 펀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만약 재해경감 활동을 “붉은색” 그리고 기후변화적응 활동을 “노란색” 이라고 하면, 상호지원 펀드는 이들의 겹치는 부분의 혼합 - 즉 “오렌지색” 펀드가 된다. 재해경감과 기후변화적응 펀드 요구는 아마 앞으로 전지구 기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가될 것이다. 재해경감과 기후변화적응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

4. 차세대를 위한 역할 (청소년과 젊은 전문가)

정부, 개발은행, 유엔, 기증자 및 이행 파트너는 청소년과 젊은 전문가가 재해경감 학습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너인 동시에 그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차세대 의사결정자 임을 인정하고, 육성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5. 수문기상 정보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자는 이 시스템의 취약한 연결부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려야 하고, 경보체계의 처음부터 끝부분까지 관련된 단체나 공동체로부터 어떤 점이 작동되고 어떤 점이 작동되는 않는지에 관한 피드백을 조사하고 청취하여야 한다. 피드백을 청취한다는 것은 단지 현재 과학의 한계점만을 인식한다고 해도 조기경보시스템의 사용 가치를 높일 것이다. 조기경보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자에게도 --수문기상 시스템 계획을 수립할 때-- 국지적 또는 지역적 수문기상 위험과 취약성, 그리고 공동체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6. 정부, 은행, 기증자 들 간의 협력 증진

제한된 재원의 활용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은행, 기증자들 간의 협력이 증진되어야만 한다! 재해경감 재정기관은 공동체 수준의 역량배양에서 탄력성을 높이고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인재중심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종 이용자의 흡수력을 염두에 두고 중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목적과 달리 운용됨에 따른 지원 이니셔티브의 위험과 원치 않거나 유용하지 못한 기술 지원에 따른 지원 이니셔티브의 위험(또는 모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